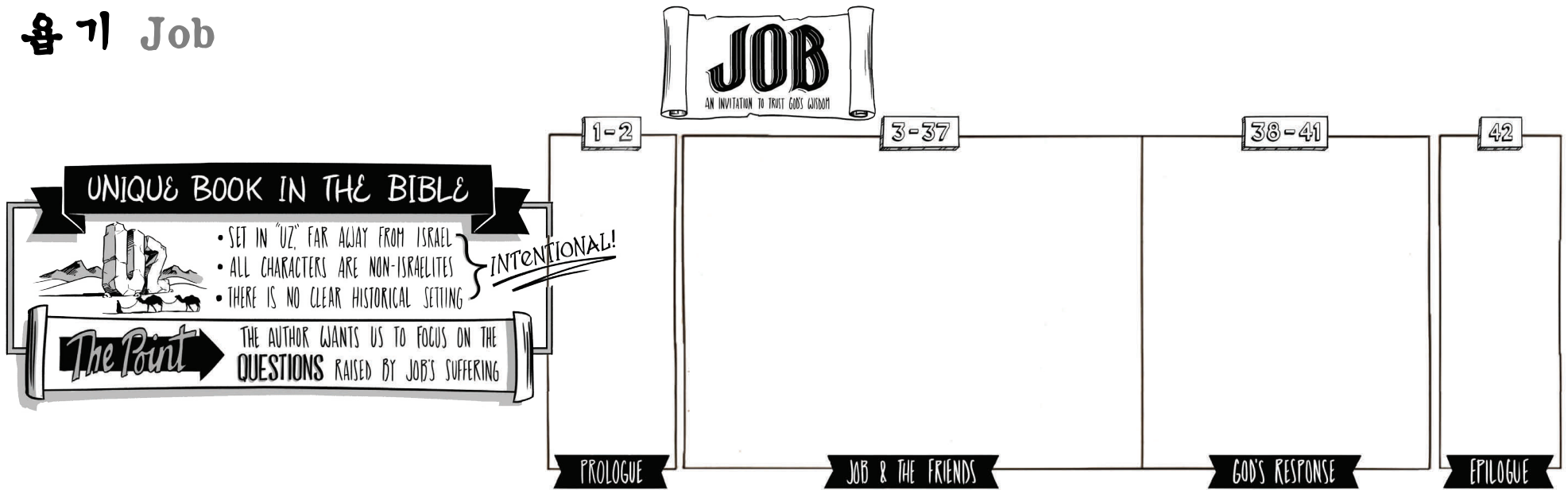


욥기 Job



1. 욥기의 특징

욥기는 아주 많은 이유로, 매우 심오하고 독특한 책입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잘 알려지지 않은 땅, 우스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인공인 욥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또한 책의 저자도 알려져 있지 않고, 고대 역사 중 어느 시대인지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의도적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역사적인 질문에 방해 받지 말고, 욥의 이야기와, 그가 고통 당한 경험에서 야기되는 질문들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욥기는 아주 분명한 문학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 형태의 프롤로그로 시작하고(1-2장), 에필로그로 끝납니다 (42장). 그 가운데 있는 본론은 욥과 “그의 친구들” 사이의

대화로, 매우 히브리적인 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3-37장). 이들의 대화는 모두 일련의 시적인 진술로 끝이 나는데 (38-41장),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2. 프롤로그: 욥의 소개와 천상회의 중 사탄의 참소

프롤로그에서 욥을 소개하면서 그가 흠이없고 의로운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정말 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천상 세계로 장면이 바뀌고, 하나님이 각료들과 함께 국무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천상회의는 구약에서

매우 일반적인 이미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지 묘사할 때 쓰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천상의 존재들 중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고소인" 또는 "고발자"를 의미합니다. 마치 법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참으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자, 그 고소하는 자(사탄)가 욥 같이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정책에 도전합니다. 그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욥을 고난에 처하게 해보면 그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알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셔서 이제 사탄이 욥에게 고난을 줍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뭐,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는 질문이 생기고, 이 책이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한 자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 그러나 책을 읽어나가도, 이 책의 어떤 내용도 그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프롤로그는 이 책이 다루려고 하는 실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과 과연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시면서 그 공의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주관하시는데 관한 질문들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시작에서는 알 수 없고, 책을 다 읽고 결말에 가서야 알 수 있습니다. 욥의 고통의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절대 밝혀지지도 않습니다. 프롤로그의 결말은 욥의 고통과, 아내에게 비난 당하고 세 친구가 찾아와 지혜와 조언을 나눠주려고 했을 때의, 욥의 당혹스러움으로 끝납니다.

그 세 친구들은, 데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그들 모두 욥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대 근동의 사고 방식, 즉 하나님과 인간 삶의 여건 속에 주어진 고통에 대한 인식을 잘 대변해 줍니다. 이제 책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3. 욥과 친구들의 논쟁 요지

욥기의 이 부분은 항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욥이 말하면 그 다음에 한 친구가 답하고, 또 다시 욥이 그 친구에게 답하면 또 다른 친구가 욥의 반응에 응답하는 식으로, 세 번 논쟁을 주고 받습니다. 이 모든 논쟁의 초점은 다음 세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의로우신 분인가?"

"철저하게 그의 공의에 따라 세상을 움직이시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욥의 고통이 해명될 수 있는가?"

1-2

- BLAMELESS
- RIGHTEOUS
- HONORS GOD

HAVE YOU CONSIDERED THE BLAMELESS, RIGHTEOUS JOB?

JOB IS ONLY RIGHTEOUS BECAUSE YOU REWARD HIM. LET HIM SUFFER, THEN SEE HOW RIGHTEOUS HE IS.

THE SATAN

SAH-TAHN n [HEBREW] ACCUSOR, PROSECUTOR

WHY? WE ASSUME THE BOOK WILL ANSWER WHY GOD ALLOWS SUFFERING.

BUT: IT DOESN'T...

THE REAL QUESTIONS: IS GOD JUST? DOES HE RUN THE WORLD ACCORDING TO JUSTICE?

JOB'S WIFE: CURSE GOD AND DIE!

JOB

ELIPHAZ THE TEMAHITE, BILDAD THE SHUHITE, ZOPHAR THE NEMATHITE

BEST OF ANCIENT NEAR EASTERN THOUGHT

ASHES

PROLOG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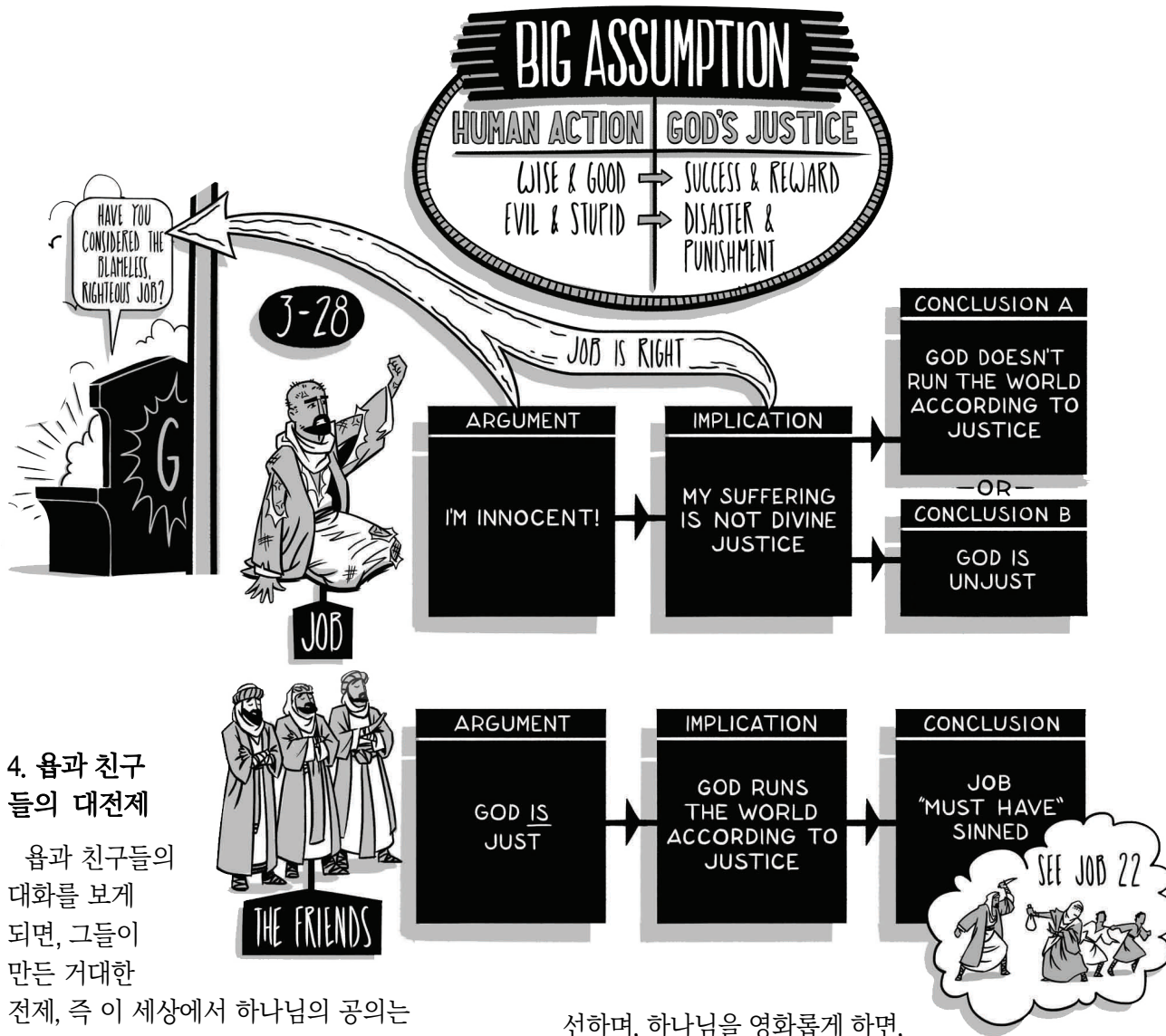
JOB'S DEBATE WITH THE FRIENDS

JOB

FOCUS OF DEBATE

- 1 IS GOD JUST?
- 2 DOES GOD RUN THE UNIVERSE ON THE STRICT PRINCIPLE OF JUSTICE?
- 3 HOW IS JOB'S SUFFERING TO BE EXPLAINED?

CYCLE 1
CHAPTERS 13-14
CYCLE 2
CHAPTERS 15-21
CYCLE 3
CHAPTERS 22-28



4. 욥과 친구들의 대전제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게 되면, 그들이 만든 거대한 전제, 즉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떠한가, 다시 말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의 철저한 공의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전제에 따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고

선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이죠. 하지만 우리가 선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 나쁜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벌입니다.

5. 욥과 친구들의 논쟁 요지

욥의 이야기 속에서 계속되는 논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둘째로) 그 속 뜻은, 그가 고통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게 아니란 것입니다 (3-28장). 우리는 프롤로그에서 이 두 가지가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 스스로 욥이 의롭고 죄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욥은 그의 논쟁을 하나님을 고소하는 것으로 결론 짓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움직이지 않거나, 심지어는 하나님 스스로가 의롭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반면에 친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주장합니다. 그 속 뜻은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공의에 따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비난하고, 욥이 정말 나쁜 죄를 지었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욥이 범했을 법한 죄들을 지어내기까지 합니다.

욥은 이 모든 것에 반박하지만 사실, 친구들의 이러한 주장에 질려서 결국 친구들과의 변론을 포기하고,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하나님께 들고 나아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욥이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하다는 점입니다. 과거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생각했었지만, 지금은 자신의 고통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합치시킬 수 없습니다(27:2).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폭발하듯 비난하기도 하고(16:9), 심지어 하나님이 이 모든 불의함들을 지휘하고 있다 주장하기도 합니다(9:22-23).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뺏어내자마자 몸서리치며 두려워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시다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27:8). 욥은 책의 이 부분에서 정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는 자신이 의롭다고 마지막으로 주장하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그에게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29-31장).

JOB'S PROTEST EMOTIONAL ROLLERCOASTER



"WHY HAS GOD DENIED ME JUSTICE AND MADE MY LIFE BITTER?" 27:2

"GOD ATTACKS ME, TEARS ME UP IN ANGER, AND GNASHES HIS TEETH AT ME." 16:9



"HE DESTROYS THE BLAMELESS AND THE WICKED, HE MOCKS THE DESPAIR OF THE INNOCENT." 9:22-23

"WHAT HOPE DO THE GODLESS HAVE WHEN GOD TAKES AWAY THEIR LIFE?" 27:8



JOB'S LAST STATEMENT

29-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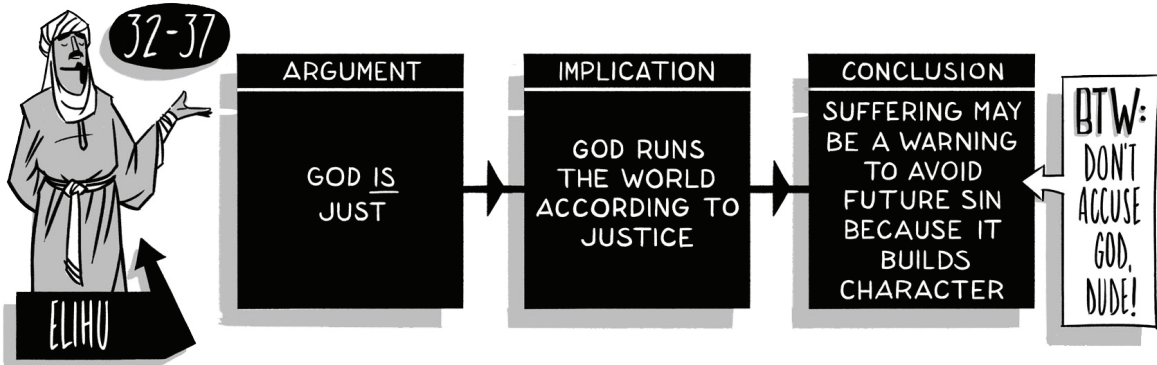
- ASSERTS INNOCENCE
- DEMANDS EXPLANATION FROM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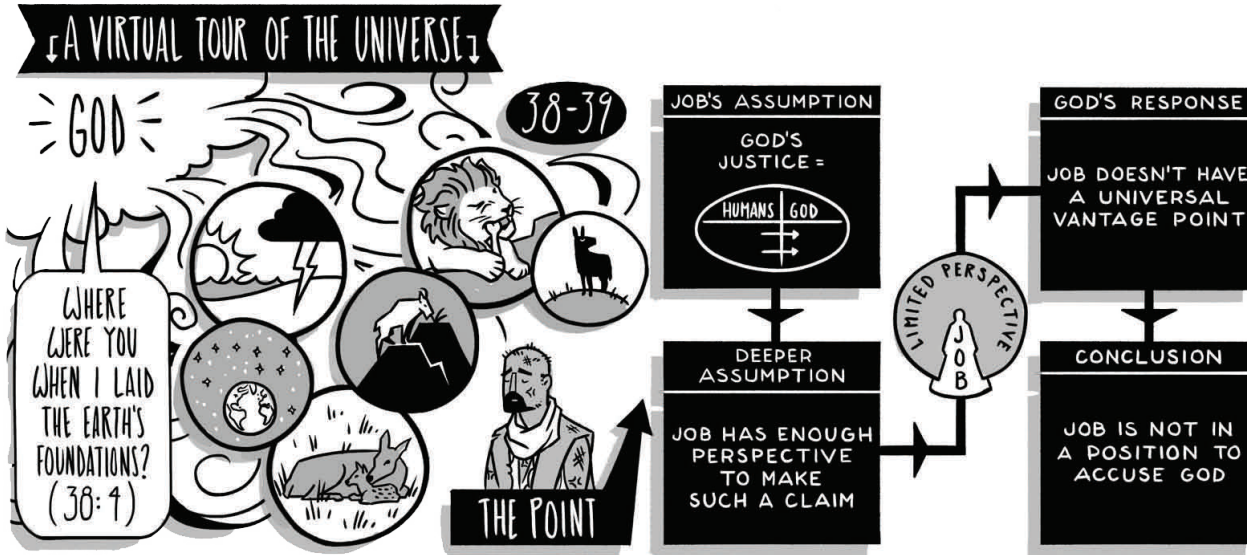
I SIGN MY DEFENSE, LET THE ALMIGHTY ANSWER ME! (31: 35)

이 때 갑자기 한 친구가 나타나는데, 바로 부스 사람 엘리후입니다(32-37장).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이름은 히브리 식입니다. 엘리후 역시 욥과 세 친구들과 같은 전제로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주장할 때 엘리후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우주를 주관하신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겪는지에 관해서는 좀 더 세련된 결론을 내립니다. 고통은 과거의 죄로 인한 벌이 아니며,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오히려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시기 위함이고, 아픔과 고통을 통해 그의 백성들의 인격을 다듬고,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고통의 이유를 안다고 주장한 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불의하시다 비난하는 게 잘못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욥은 엘리후의 변론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대화는 끝이 납니다. 고대의 모든 지혜가 동원되었지만, 여전히 수수께끼는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십니다. 우선, 이 우주는 광대하고 복잡한 곳이며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세세하게 감찰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욥의 세계관은 그의 작은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므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불의해 보이는 것은, 이제 무한하게 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가상 여행 이후, 하나님은 욥에게 한번 하루라도 이 세상을 꼼꼼하게 경영해 보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이 전제한 대로

6. 하나님의 첫째 응답

이 때 갑자기, 하나님이 회오리바람 속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개인적으로 응답하십니다 (38-41장). 먼저 답하신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세상을 바로 주관하시지 못한다는 비난에 대해서입니다. 욥에게 가상 우주 여행을 준비해 주시고, 여러가지 질문들을 던지십니다 (38-39장).

우주의 기원과 질서에 대해 욥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땅을 건축하실 때, 별자리를 만드실 때 욥이 거기 있었는지, 언제 해에게 일어나라고 명한 적이 있었는지, 날씨를 주관해 보았는지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세밀하게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욥은 결코 생각을 품어본 적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나서 하나님은 상세한 부분들, 예를 들어 산양의 풀 뜯는 습관이나 암사슴의 출산, 혹은



사자와 들나귀들의 식습관 등등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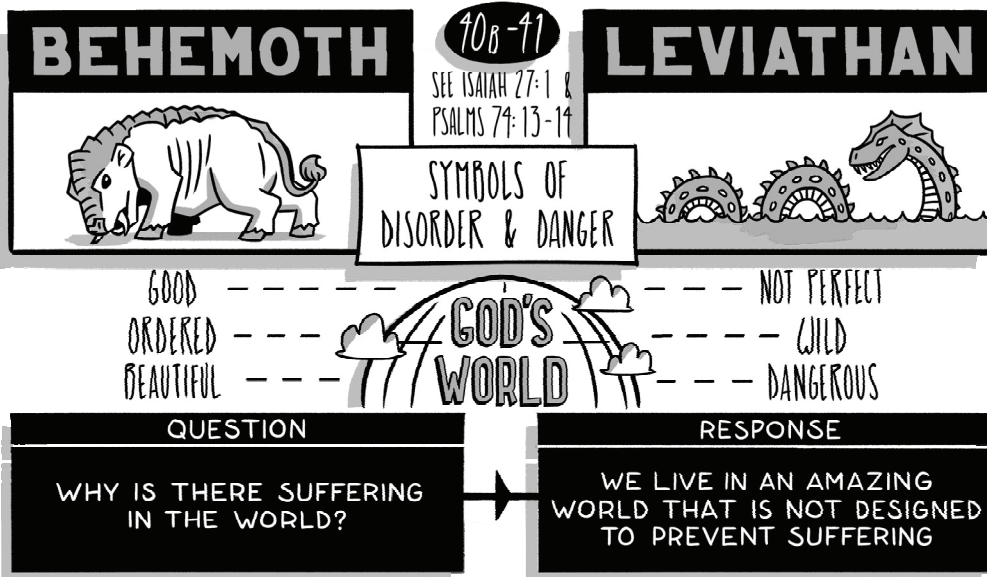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것입니까? 욥과 그의 친구들의 전제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공의에 따라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게 뭘까요? 사실 그 전제 아래에는 더 깊은 전제가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은 인생에 대해 너무나 폭넓은 관점을 가지는 바람에, 심지어는 (주제 넘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이 가상 여행을 통해 응답하시고, 욥과 친구들의 가설이 모두 틀렸다고

엄격한 정의의 원칙에 따라서 다스려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모든 악한 행동은 벌하고, 매 순간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인과응보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은 곳에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복잡한 일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생각처럼 흑백 논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7. 하나님의 둘째 응답

이제 마지막 응답으로 하나님은 두 동물을 묘사하기 시작하십니다(40-41장). 베혜뿔과



리워야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마나 악어의 시적 표현이라고 하지만, 그보다는 아마도 고대 근동 신화에서 잘 알려진 동물로서,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한 세상 안에 존재하는 무질서와 위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들을 꽤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그렇다고 또 그들이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요점은 하나님의 세상이 너무도 놀랍고 선하지만 완전하거나 항상 안전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거기엔 질서가 있고 아름답지만, 거칠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 두 동물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욥의 고통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왜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 고통이 지진에 의해서건, 야생 동물에 의해서건,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복잡하고,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적어도 지금 이 단계에서는 고통을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답입니다. 욥은 이런 하나님의 의에 도전했고, 하나님은 답하시길, 욥이 우주 만물에 대해 충분한 지식이 없기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께 완전한 설명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인격을 신뢰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이제 욥은 회개와 겸손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욥기는 짧은

에필로그로 결론을 맺습니다.

8. 에필로그: 하나님의 선언과 욥의 회복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틀렸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너무 단순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복잡한 만물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시고, 욥이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은 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의외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말이 항상 옳지 않았니기 때문입니다. 욥은 다소 성급하고 잘못된 결론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욥의 씨름(고뇌)을 인정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와서 이 모든 감정과 고통을 토로했던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고민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는 게 옳다 하신 것입니다.

이 책은 욥이 그의 재산과 가족, 건강 모두를 회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42장). 하지만 이 회복은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결말입니다.



9. 결론

하지만 욥기는 왜 선한 자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이 책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도록 권면합니다. 고통의 문제에 직면할 때, 그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쓰기 보다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에 집착하면 하나님을 단순하게 만들거나, 욥이나 친구들처럼 겨우 몇 가지 증거만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책이 권면하는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JOB'S DEBATE WITH THE FRIENDS

JOB

AN INVITATION TO TRUST GOD'S WISDOM

UNIQUE BOOK IN THE BIBLE

- SET IN "UZ," FAR AWAY FROM ISRAEL
 - ALL CHARACTERS ARE NON-ISRAELITES
 - THERE IS NO CLEAR HISTORICAL SETTING
- INTENTIONAL!**

The Point → THE AUTHOR WANTS US TO FOCUS ON THE QUESTIONS RAISED BY JOB'S SUFFERING

FOCUS OF DEBATE

- 1 IS GOD **JUST**?
- 2 DOES GOD RUN THE UNIVERSE ON THE STRICT PRINCIPLE OF **JUSTICE**?
- 3 HOW IS JOB'S SUFFERING TO BE EXPLAINED?

BIG ASSUMPTION



3-37

JOB'S PROTEST

EMOTIONAL ROLLERCOAS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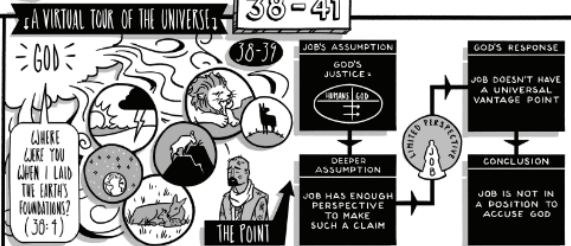
"WHY HAS GOD DENIED ME JUSTICE AND MADE MY LIFE BITTER?" 27:2

"GOD ATTACKS ME, TEARS ME UP IN ANGER, AND GNASHES HIS TEETH AT ME."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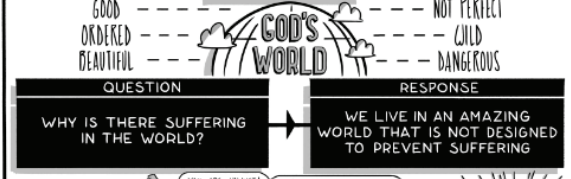
"HE DESTROYS THE BLAMELESS AND THE WICKED, HE MOCKS THE DESPAIR OF THE INNOCENT." 9:22-23

"WHAT HOPE DO THE GODDESS HAVE WHEN GOD TAKES AWAY THEIR LIFE?" 27:8

38-41



10A JOB: EVIL & INJUSTICE MURDER LIES. IT'S COMPLEX, AIN'T IT? GOD



12A JOB: YOU'RE NOT IN A POSITION TO MAKE THAT CLAIM! I REMAND AN EXPLANATION! I INVITE YOU TO TRUST MY WORD.

GOD'S RESPONSE

42



12B JOB'S FAMILY & FORTUNES RESTORED



EPILOGUE

1-2



WHY? BUT: THE REAL QUESTIONS: IS GOD JUST? DOES HE RUN THE WORLD ACCORDING TO JUSTICE?



PROLOGUE

3-28



JOB & THE FRIENDS

JOB'S LAST STATEMENT

- ASSERTS INNOCENCE
- DEMANDS EXPLANATION FROM GOD

I SIGN MY DEFENSE, LET THE ALMIGHTY ANSWER ME! (31: 35)

LET W: DON'T ACCUSE GOD, DUDE!